

『靈樞·經脈』의 經脈 流注 묘사에 나타난 頭面部 각 부위의 名稱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정현종¹⁾

A Study on names of face part related with pathways of meridians in 『Yeongchoo · Kyeongmaek』

Hyun-Jong Jung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about diverse meanings, directions and related parts on pathways of meridians on face mentioned in 『Yeongchoo · Kyeongmaek』. In this article, I focus on finding right positions of pathways and right names of what is related with pathways. In methods, I found out names of face part related with pathways of meridians in 『Kyeongmaek』 and compared with other names. As a result, I suggest that we have to make a fine definition about terms describing pathways of meridians instead of meridian points and broad names on face.

Key words : 『Yeongchoo · Kyeongmaek』, definition, pathway, meridian

I. 緒論

頭面部는 인체 부위 중 겉으로 드러나 있어 가장 관찰하기 쉬운 곳이며,喜怒哀樂의 감정 뿐 아니라 인체의 疾病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며, 經脈의 흐름에 있어서도 手陽經 6개의 經脈이 끝나며, 足陽經 6개의 經脈이 시작하는 곳으로 비교적 좁은 부위에 많은 經脈이 복잡하게 흐르는 부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診斷의 관점에 있어서나 治療의 방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頭面部 經脈의 流注에 나타난 명칭 및 단어를 살펴보면 설명이 자세하지 않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 및 해부학적 명칭에 적용하기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또한 두면부의 명칭은 시대적으로 사용된 명칭이 달라 異名이 많고, 다른 부위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현행의 教科書나 기타 圖書 등에서 經絡의 流注를 說明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靈樞·經脈』의 流注 묘사에서 언급된 頭面部의 名稱을 부위별로 분류하고, 名稱의 辭典的 의미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제시하고, 流注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名稱과 比較하고자 하며, 또한 비슷한 부위지만 다른 名稱으로 불리거나, 같은 위치지만 서로 달리 지칭되는 경우에 대하여 비교하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정현종,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2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063-850-6808, E-mail : kendu@korea.com

접수일(2010년 8월30일), 수정일(2010년 9월17일),

게재확정일(2010년 9월18일)

II. 本論

1. 『靈樞·經脈』에서 頭面部의 流注 묘사에 언급된 名稱

『靈樞·經脈』에서 설명하고 있는 經脈의 流注 중 頭面部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手太陰肺經과 手厥陰心包經을 제외한 10개의 經脈이 頭面 및 頸項部에 流注하고 있는데, 그 原文은 다음과 같다.

“肺手太陰之脈은 ……大腸手陽明之脈은 …… 其支者는 從缺盆으로 上頸貫頰하여 入下齒中하고 還出挾口하여 交人中하고 左之右右之左하여 上挾鼻孔이라 胃足陽明之脈은 起於鼻之交頰中하여 旁約太陽之脈하고 下循鼻外하여 入上齒中하고 還出挾口環唇하여 下交承漿하고 却循頤後下廉하여 出大迎하고 循頰車하여 上耳前하고 過客主人하여 循髮際하고 至額顛이라 其支者는 從大迎前으로 下人迎하고 循喉嚨하여 入缺盆하고 下膈하여 …… 脾足太陰之脈은 …… 入腹하여 屬脾하며 絡胃하고 上膈하여 挾咽하고 連舌本하여 散舌下라 …… 心手少陰之脈은 ……其支者는 從心系로 上挾咽하여 繫目系라 …… 小腸手太陽之脈은 …… 其支者는 從缺盆循頰上頰하여 至目銳眦하고 却入耳中이라 其支者는 別頰上頰하여 抵臑하고 至目內眦하여 斜絡于顛이라 膀胱足太陽之脈은 起于目內眦하여 上頰하고 交顛이라 其支者는 從顛至耳上角이라 其直者는 從顛入絡腦하고 還出別下項하여 …… 腎足少陰之脈은 …… 其直者는 從腎上貫肝膈하여 入肺中하고 循喉嚨하여 挾舌本이라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은 …… 三焦手少陽之脈은 …… 其支者는 從臑中上出缺盆하여 上項繫耳後하고 直上出耳上角하여 以屈下頰至顛이라 其支者는 從耳後入耳中하여 出走耳前하고 過客主人前하여 交頰하고 至目銳眦라 膽足少陽之脈은 起于目銳眦하여 上抵頭角하고 下耳後하여 循頰 行手少陽之前하고 至肩上하여 卻交出手少陽之後하고 入缺盆이라 其支者는 從耳後入耳中하여 出走耳前하고 至目銳眦後라 其支者는 別銳眦하여 下大迎하고 合于手少陽하여 抵于顛하고 下加頰車하여 下頰하고 合缺盆하여 以下胸中하고 …… 肝足厥陰之脈은 …… 循喉嚨之後하여 上入頰頰하고 連目系하여 上出額하고 與督脉會于顛이라 其支者는 從目系下頰裏하여 環唇內라 ……”¹⁾

여기 原文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名稱을 두개부, 광대뼈 부위, 안구 주위, 입 주위, 귀 주위, 코 주위, 턱과 뺨 부위, 목 부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두개부 : 額 額顛 巔 腦 頭角 髮際

광대뼈 부위 : 頤 顛

눈 주위 : 目系 目銳眦 目內眦

입 주위 : 口 下齒 上齒 唇 人中 承漿 舌本

귀 주위 : 耳前 耳中 耳上角 耳後

코 주위 : 鼻孔 顛

턱과 뺨 부위: 頰 大迎 頰車 頤 客主人

목 부위 : 頸 項 人迎 喉嚨 缺盆 咽 頰頰

2. 언급된 名稱에 대한 研究²⁾

2-1 두개부

- ① 額(액) : 보통 우리가 ‘이마’라고 부르는 부위로 머리 앞쪽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부위(前髮際)에서 눈썹 윗부분까지를 말하는데, 額, 頰, 額顛라고도 표현한다. 顛(노)는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骨格을 표현하는 것으로, ‘額顛’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는 전두골(frontal bon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額의 중앙에 융기한 부위를 庭(天庭, 闕庭)이라고 따로 표현하기도 한다.
- ② 巔(전) : 원래는 산꼭대기를 일컫는 단어로, 두면부에서는 머리 꼭대기 즉 두정골(parietal bone)의 최상단 부위를 의미한다. 巔의 앞쪽에는 전두골(frontal bone)과 양측 두정골(parietal bone)의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顛(函, 函門)이 있다.

1)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注補補注靈樞. 서울. 도서출판 의성당. 2002. pp.293~356.

2) 아래에 언급된 설명은 『東洋醫學大辭典』(傳統醫學研究所編纂. 서울. 성보사. 2000.), 『明文大玉篇』(金赫濟, 金星元 編著. 서울. 明文堂. 2003.), 『中國意學大辭典』(謝觀 編著. 서울. 여강출판사. 2001.), 「望診遵經에 대한 연구」(李英鎭. 원광대학교대학원. 익산. 2010.), 『인체해부학』(노민희 등. 서울. 고문사. 1992.), 「靈樞·經脈에 대한 研究」(黃德讓.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익산. 2002.) 『漢醫學辭典』(金賢濟, 洪元植 編譯. 서울. 성보사. 1991.)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따로 인용부호를 침부하지 않았다.

- ③ 腦(뇌) : 寄恒之府의 하나로 頭蓋腔 안의 脊髓와 연결되어 있는 실질기관(parenchymal organ)을 가리키는데, 때로는 頭蓋骨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從巔入絡腦...” 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뇌(brain)를 가리키고 있다.
- ④ 髮際(발제) : 안면의 피부 중 頭髮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경계, 즉 머리카락이 나는 곳과 나지 않는 경계선을 가리킨다. 이마 앞쪽의 前髮際와 뒷덜미 부분의 後髮際가 있다.
- ⑤ 頭角(두각) : 額角이라고도 하며, 머리 앞쪽 前髮際의 좌우 양 끝에서 아래로 彎曲되어 角을 이룬 부분을 말한다. 『四診扶微』의 ‘面部形色 諸證之圖’³⁾에서는 ‘頭角’에 해당하는 부위를 ‘太陽’으로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2-2 광대뼈부위

- ① 顳(절, 골) : 사전적 의미로는 광대뼈와 콧마루를 지칭하나, 해부학에 있어서 상악골(maxilla)과 광대뼈(zygomatic bone)로 구성된 眼窩의 아래쪽 내측 부분에 해당한다.⁴⁾
- ② 顳(관/권) : 頰, 颞로 표현되기도 하며, 광대뼈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데, 眼窩의 아래쪽 외측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안구 주위

- ① 目系(목계) : 眼系, 日本이라고도 하며, 腦에 연결되어 있는 안구에서 뻗어가 뇌로 연결되는 끈 모양의 구조물, 즉 시신경이다. 流注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心系, 肺系가 있는데 모두 끈이나 줄 모양의 구조물을 표현하고 있다.
- ② 目銳眥(목예자) : 眼外角, 小眥라고도 표현하는데, 目窠, 約束, 目綱, 目弦, 胞弦, 臉弦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아래와 위 눈꺼풀이 만나는 연결부위 중 외측의 부위를 말한다.

- ③ 目內眥(목내자) : 大眥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래와 위 눈꺼풀이 만나는 연결부위 중 내측의 부위로 코와 연결되는 부위를 말한다. 이 코와 연결되는 부위에 눈물이 배출되는 통로의 기점이 되는 淚竅, 淚堂으로 불리는 눈물 소관의 입구가 있다.

2-4 입 주위

- ① 口(구) : 음식이 들어가는 구멍으로서 ‘입’을 말하는데 입의 양쪽 구석, 즉 아래와 위의 입술이 합쳐지는 곳을 나타내는 ‘口角’의 의미와, 입술이 둘러싸고 있는 입의 주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吻物’의 의미, 또는 구멍으로서의 입과 입 주위를 경계 짓는 입술을 같이 표현하는 ‘口脣’의 의미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② 上齒(상치), 下齒(하치) : 윗니와 아랫니를 말하나, 經脈의 流注에서 묘사된 경우를 보면 “大腸手陽明之脈은 …… 其支者는 從缺盆으로 上頸貫頰하여 入下齒中하고 還出挾口하여…”, “胃足陽明之脈은 起於鼻之交頰中하여 旁約太陽之脈하고 下循鼻外하여 入上齒中하고 還出挾口環脣하여 ……”라고 하여 모두 구강 내부의 치아와 잇몸 등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의미이므로, 經脈이 지나가는 부위가 음식을 씹는 드러난 부위로서의 치아가 아니라 齒槽骨에 해당하는 ‘牙車’, 치조골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강점막의 조직인 잇몸에 해당하는 ‘牙床’, ‘齒齦(齦)’을 모두 포괄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脣(순) : 唇, 飛門이라고 하며, 입의 아래위에 붙은 얇고 부드러운 살 부분을 말하고 있다. 流注에 서는 “胃足陽明之脈은 …… 入上齒中하고 還出挾口環脣하여…”이라고 하여 ‘脣’이 한번 언급되었는데 ‘입술’ 보다는 ‘입 주위’의 의미가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 ④ 人中(인중) : 水溝라고도 하며, 코 아래, 입술 위쪽에 세로로 파여진 골을 말한다. 상악간봉합(intermaxillary suture)의 중앙부위에 해당한다.

3) 林之翰 原著 吳仕驥 点校. 四診扶微.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 58.

4) 眼眶의 下部, 包括 顳骨內連及上牙床의 部位.; 陳璧琉 鄭卓人 合編.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 119.

- ⑤ 承漿(승장) : 아랫입술 중앙부 아래의 움푹 들어간 곳으로 턱끝울기(mental protuberance)의 윗부분에 해당한다.
- ⑦ 舌本(설본) : 舌根, 舌體라고도 하며, 任脈 中廉泉穴의 별명으로 쓰이기도 한다. 『靈樞·熱病』에서 “熱病에 不可刺者 有九니 ……六曰 舌本爛하고 熱不已者는 死요……”⁵⁾라고 표현한 부분을 보면 ‘舌本’이 혀의 뒷부분에 인두를 마주하여 후두개까지 뻗어있는 혀의 가장 안쪽 부분 즉, 혀가 구강 내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으며, 목뿔뼈(hyoid bone)의 위모서리의 오목한 곳에 위치한 廉泉穴(CV23)의 별명인 점을 고려하면⁶⁾ 구강의 바닥을 구성하고 혀의 움직임에 관여하면서, 연하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악설골근(mylohyoideus)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5 귀 주위

- ① 耳前(이전) : 외이도의 앞쪽에 융기되어 있는 귀구슬(tragus) 상단부의 凹陷處로, 하악골의 관절돌기(condylar process)를 나타내는 耳門骨(玉梁骨)의 윗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蔽(폐)라고도 하였다.
- ② 耳中(이중) : 외이도의 안쪽 즉 中耳(middle ear)와 內耳(internal ear)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③ 耳上角(이상각) : 귓바퀴(auricle 耳廓 耳殼)의 가장 윗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④ 耳後(이후) : 측두골의 유양돌기(mastoid process) 부분으로 足少陽膽經의 完骨穴의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천성준. 『靈樞熱病』에 대한 研究.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p. 48

6)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교재편찬위원회. 대학경락경혈학각론. 원주시. 의방출판사. p. 1212

2-6 코 주위

- ① 鼻孔(비공) : 鼻竅, 鼻隧라고도 하며, 호흡할 때 공기가 출입하는 통로를 말한다. 그러나 流注의 “大腸手陽明之脈은 ……交人中하고 左之右右之左하여 上挾鼻孔이라……”는 표현을 보면 콧구멍 자체보다는 콧방울(wing of nose) 양쪽을 가리키는 鼻翼, 方上의 의미가 더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콧방울에서 口角 外側으로 이어지는 주름을 巨分기이라고도 한다.
- ② 頰(알) : 두 눈의 目內眥 사이에 있는 콧대 부분을 가리키는데, 콧등(dorsum of nose)의 윗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山根, 下極⁸⁾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단어로는 코 전체를 明堂, 콧등 전체는 鼻梁, 鼻柱, 鼻莖, 年壽으로 불리우며 콧등의 끝부분은 準頭, 面王, 鼻尖으로 부른다.

2-7 턱과 뺨 부위

- ① 頰(협) : 귀의 앞쪽, 광대뼈(zygomatic bone)의 아래쪽에 있는 안면부위, 즉 얼굴의 옆 부분을 말한다. 頰車는 手陽明大腸經의 經穴名이지만, 부위를 가리키는 말로 하악골 전체나 하악각(mandibular angle) 부위를 의미하여 치아를 받쳐서 음식을 씹을 수 있게 하는 역할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으로 頰과는 구분이 된다.⁹⁾ 뺨을 의미하는 다른 명칭으로 腮(顛)와 頰(頰), 頰가 있다. 腮는 뺨의 한복판으로, 뺨피관(cheek flap)의 바깥쪽 벽에 해당하며, 頰은 뺨 중에 음식을 머금으면 부풀어 오르는 부분으로 하악골의 위치와 비슷하며, 頰車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 ② 大迎(대영) : 足陽明胃經의 經穴로 하악각(mandibular angle)의 상방에 위치하며 강하게 씹으면 크게 융기되는 교근(masseter)이 부착되는 부위이다.

7)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영추연구집성 中卷. 익산.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 1127.

8) 朴晷 譯釋. 診斷學權輿.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11.

9) 許慎 撰, 殷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p.416.

③ 頤(이) : 頤, 下巴 라고도 하며 口角의 뒤편이며, 腮의 아래에 해당하는 하악골의 일부이다.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頰가 있는데 이는 턱밑을 가리키는 것으로, 承漿穴 밑에서 下顎骨의 下緣에 이르는 부위이다. 정면에서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의 경계를 짓는 턱선 부위인 庭畔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頤에 아랫부분은 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客主人(객주인) : 足少陽膽經 上關穴의 異名으로 광대뼈의 측두돌기(temporal process) 上緣의 함몰부위로 입을 벌려서 취혈 하는데, 客主, 容主 라고도 한다.

2-8 목 부위

① 顛項(경항) : 顛과 項은 목이라는 의미로 대부분 같이 쓰이나, 顛은 머리와 몸을 잇는 목에서 공기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앞부분을, 項은 누울 때 바닥에 닿는 근육이 많은 목의 뒷부분을 말한다. 顛項部를 구성하고 있는 頸椎를 天柱骨, 旋臺骨, 頸骨로 표현한다.

② 人迎(인영) : 신체의 위치로서는 총경동맥(common carotid artery)의 박동부위를 말하며, 足陽明胃經의 經穴名으로 총경동맥의 후방,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eus)의 앞모서리에 있다.

③ 喉嚨(후롱) : 목안에 있는 공기가 출입하는 통로로서 기관(trachea)을 말한다. 이는 結喉라 불리는 갑상연골(thyroid cartilage)의 후두융기(laryngeal prominence)의 뒷부분에 위치해 있다.

④ 缺盆(결분) : 語義대로 이지러진 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는 鎖骨(clavicle) 上緣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말하며, 같은 곳에 위치한 足陽明胃經의 穴名이기도 하다.

⑤ 頤頰(항상) : 인후부 위쪽의 상악동(maxillary sinus)과 코인두(nasopharyngeal meatus)가 만나는 부위로 연구개(soft plate)의 뒷부분을 가리킨다. 목구멍에 있어서 이마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⑥ 咽(인) : 噎, 咽嗑, 喉嗑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음식의 섭취와 함께 호흡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일반적으로 咽喉로 병칭하였다.

III. 結論 및 考察

1. 流注에 사용된 名稱과 관련 단어의 종합

① 두개부

‘額’은 前髮際와 눈썹으로 경계되는 앞이마 전체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額顛’라고도 한다. ‘額’의 바깥쪽 髮際부분을 ‘額角’(頭角)이라고 하며 ‘額’의 정중앙을 ‘天庭’, 두정골의 최상부를 ‘巔’, ‘額’과 ‘巔’의 사이를 ‘顛’이라고 한다.

② 광대뼈 부위

광대뼈를 포괄하는 명칭은 ‘顛’이나 眼窩의 아래쪽 내측 부분을 형성하는 부위는 ‘頤’, 眼窩의 아래쪽 외측 부분을 형성하는 부위를 ‘顛’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안구 주위

上下 眼瞼이 만나는 부위 중 귀 쪽의 부분을 ‘目外眥’(小眥), 코 쪽의 부분을 ‘目內眥’(大眥)라고 하고, 眼球에서 시각신경관(optic canal)을 빠져나와 腦와 연결되는 시각신경(optic nerve)이 ‘目系’이다. 流注에 표현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心系, 肺系가 있다.

④ 입주위

‘口’는 口脣의 집합체로 보아야 하며, 입 주위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吻’과 같은 의미이다. 위와 아래 입술이 만나는 양쪽의 옆 부분을 ‘口角’이라고 한다.

‘舌本’은 혀의 가장 안쪽 부분, 즉 혀가 구강 내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廉泉穴(CV23)의 異名으로 해부학적으로 하악설골근(mylohyoideus)을 지칭하기도 한다.

⑤ 귀주위

외이도를 중심으로 앞쪽의 귀구슬 부위가 ‘耳前’, 외이도 前下方의 하악골의 관절돌기를 ‘耳門骨’, 외이도의 안쪽 中耳와 內耳가 ‘耳中’, 귓바퀴의 가장 윗부분이 ‘耳上角’, 귀 뒤의 유양돌기가 ‘耳後’로 표현되어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流注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지 않으므로, 귀의 前上部에 있는 관자놀이 부위의 모발을 뜻하는 “鬢(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곤란하지만 두면부에 있는 다양한 모발을 지칭하는 鬚(수 - 입 아래 및 양쪽 뺨에 난 수염), 髻(염-귀밑에서 턱까지 양옆에 나는 구레나룻), 鬚(자 - 입 위쪽에 난 수염)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입 주위 및 뺨의 유주 및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③ 流注에 사용된 穴名

『靈樞·經脈』은 經脈의 流注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經絡學說을 가장 계통적으로 논술한 篇이지만 編著者와 저작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¹⁰⁾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명칭들이 어느 한 시대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頭面部의 流注에 나타나는 ‘缺盆’, ‘人中’, ‘承漿’, ‘大迎’, ‘頰車’, ‘客主人’ 등의 穴名이 직접적으로 穴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인지 아니면 인체의 부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流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④ ‘口’, ‘鼻’

流注를 살펴보면 두면부의 구멍인 ‘口’, ‘鼻’, ‘耳’가 언급된다. ‘耳’는 구멍이기는 하나 ‘口’와 ‘鼻’처럼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주위의 명칭이 다양하여 위치를 표현하는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口’와 ‘鼻’라는 단어로만은 經脈이 흐르는 정확한 부위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위를 표현하는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手陽明大腸經의 “……入下齒中 還出挾口 交人中 左之右 右之左 上挾鼻孔”의 경우 ‘口’를 ‘口角’이나 ‘吻’으로 ‘鼻孔’을 ‘鼻翼’이나 ‘鼻外’로 바꾸어야 정확할 것이다.

參考文獻

1.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注補注靈樞. 서울. 도서출판 의성당. 2002.
2. 傳統醫學研究所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정보사. 2000.
3. 金赫濟, 金星元 編著. 明文大玉篇. 서울. 明文堂. 2003.
4. 謝觀 編著. 中國意學大辭典. 서울. 여강출판사. 2001.
5. 李英鎭. 望診遵經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익산. 2010.
6. 노민희 이한기 정영태 공편. 인체해부학. 서울. 고문사. 1992.
7. 黃德讚. 靈樞經脈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익산. 2002.
8. 許愼 撰, 殷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9.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범인문화사. 2007.
10. 중의연구원, 광동중의학원편. 한의학명사술어사전. 서울. 논장. 1991.
11. 朴奭 譯釋. 診斷學權輿. 서울. 대성의학사. 2000.
12. 金賢濟, 洪元植 編譯. 漢醫學辭典. 서울. 정보사. 1991.
13. 陳璧琉 鄭卓人 合編. 靈樞經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14.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영추연구집성. 익산.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10) 黃龍祥.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범인문화사. 2007. pp.632~634.

